# 모두가 이 마음 근본에 달려있으니 이 마음공부가 아주 필요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여기 앉아 있는데 하늘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빙긋이 웃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받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귀중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손가락 하나로 받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손가락 이것도, 즉 말하자면 손가락이라는 건 가리키는 방편이지, 진짜 하늘을 받칠 수 있는 손가락 하나는, 그거는 말로 형상이 되고 말로 이름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질문자2(남)** 현재 우리나라에는 몸에 신이 들린 사람이나 신기(神氣)가 있는 사람들이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상당히 평화롭지 못하고 분란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을수록 그런 영향이 무척 많더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 암자 같은 데 전국 곳곳의 계룡산이라든지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신들린 사람들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그런 것이 다 업보 때문인지요.

**큰스님**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가 모셔 놓고 전자에 선대에서 모셔 놓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 영령(英靈)이 딴 데로 뜨질 못하고 그냥 자손들한테 연결이 되거나 이런 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가다 오다 차 사고가 나도 그렇고, 어디에서 죽어도, 물에서 죽어도 그렇고 그 영령이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보이지 않는 저 그림자 같은 영령이니까 그냥 아무 데로나 가도 되는 것 같지만, 비행기가 그냥 공중에 떴으니까 아무 데로 가도 되는 것 같지만 길이 있듯이, 우리가 한 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또 딴 사람을 하나 넣고야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셋째는, 내 몸뚱이 속에 그 의식들, 생명, 모습들이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돼 있거든. 그러면 그 안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차근차근 '나는 아무개다, 나는 아무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 속아서 그냥 영이 들린 줄 알고 그냥 바깥으로 그렇게 헤매는 거지. 그러면 그 의식들이 다 그냥, 즉 말하자면 미친 영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글대니까 이 체가 말이야, 이것이 살 때는, 이 의식이 동요할 때는 그 의식의 동요를 받아서 그냥 움죽거리고, 이것이 그럴 때는 이것에 움죽거리고 저것이 그럴 때는 저것이 움죽거리고, 막 부수고 그냥 그러는 이 의식이 나오면 그대로 막 부수고, 이렇게 그냥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깐 미쳤다고 그러지, 주위에서 볼 때는.

그러니깐 그것을 고치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첫째 과거의 그 조상들이 천도가 돼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내가, 이 영계의 물방울이 세 방울이 있다면 여기 한 컵에다가 다 집어넣으면서 천도를 한번 해 드리면 되겠지. 세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한 번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 컵으로 물이 돼야 이게 괜찮아지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부인이 어린 애 둘을 낳고 죽었는데 부인을 얻어오기만 하면 이건 사고가 나, 그냥. 문제가 생겨. 도저히 부인을 얻어서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것도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그 영혼을 천도를 시키기보다는 지금 새로 들어온 부인과 한데 합쳐 주면은 얼마나 잘 살겠소? 하하하. 아,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아량과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 밑에서 자손들은 잘될 거고, 지혜가 없는 부모 밑에서는 잘되지 못한다 이런 소리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하! 이 마음이 근본에 달려 있으니까 이 공부가 아주 필요한데, 그 영계가 들린 사람들이나 안에서 업보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나 보면요, 본인이 그렇게 관하게끔 해 놓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 가지도 마라." 이러니깐, 그리고 "방에서 나가지 마라." 이러고 하기도 하고 "먹지 마라." 이러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자꾸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그 막는 대로 따라서 움죽거리니까 도저히 힘들죠, 그거. 그래서 어떤 때는 집안에서 도저히 그거를 볼 수가 없고 식구들이 살 수가 없으니깐 병원에 갖다 놓고 침착하게 관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죠.

>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모든 걸 관하면서 하라.**
> **자기 그릇의 분수를 모르고서 강을 건너다가**
> **중간에 빠져 죽는다.**

**질문자2(남)** 그런데 그 사람 부모가 신이 들리면 밑에 있는 자손들이 같이 고통을 겪는데, 그게 자손들도 똑같이 그러면, 모든 업보들이 털끝만치 빈틈이 없다는데 그러면 자손들이 그런 부모로 인해 받는 그 업보도, 신적인 업보도 자기가 지은 업보 때문인지요? 그 자손들이 지은 업보 때문인지요?

**큰스님** 그렇지. 이게 염주가 이렇게 있으면 한 염주줄에 염주알이 다 꿰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의 조상들한테…, 이렇게 지금 현재에 보여 줄 테니까 들어 봐. 깡통은 깡통끼리 모이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깡통끼리 모였고 금끼리 모이고, 무쇠끼리 모이고 넝마끼리 모이고, 이게 인간도 정치인들끼리 모이고 미술가는 미술가대로 모이고 이러듯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듯이 한 식구가 그렇게 같은 차원에서 모였거든. 같은 차원에서 모였으니까 같은 그 업을 지금 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알고, 그대로 그냥 속지 말고 그냥 한군데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군데에다 다 맡기고, 그냥 믿고 다 그냥 거기다 해결하면, 본인도 그렇게 하면 그냥 뭐, 하루도 걸리지 않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해. 그걸 몰라, 그냥. 말을 열 마디 백 마디 해 줘도 그게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 글쎄? 그러니 내가 네 대신 똥을 눠 줄 수 있고 먹어 줄 수 있고 죽어 줄 수 있다면 내가 해 줄 수 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단 얘기야.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을 지어서 만약에 5년 징역이라든가 10년 징역을 해 놨는데, 제삼자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거를 무죄로 할 수 있어?

**질문자2(남)** 그 밑에서 자식들이 받는 그것도 우리가 모두 자식들이 그만큼 지었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

**큰스님** 똑같이 지은 거지.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짓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거든, 그게. 그러니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지. 부모가 자식 탓 할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 탓 할 수도 없어!

자신들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가족들 중에 여기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다섯 식구라 하면 한 식구가 여기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남들 하는 거보다 배를, 자기가 더 그냥 적극 그냥 들어가야지. 모두를 한데 합해서 그냥 다 집어넣고 들어가야지. 그러든지 식구가 전부 똑같이 열심히 해서 하면 어쩌면 그냥 무산이 돼 버릴 수가 있지.

**질문자3(남)** 언젠가 큰스님께서 이 세상 만물은 그 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사멸하거나 퇴보한다는 그런 말씀을 잠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는 현재 퇴보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발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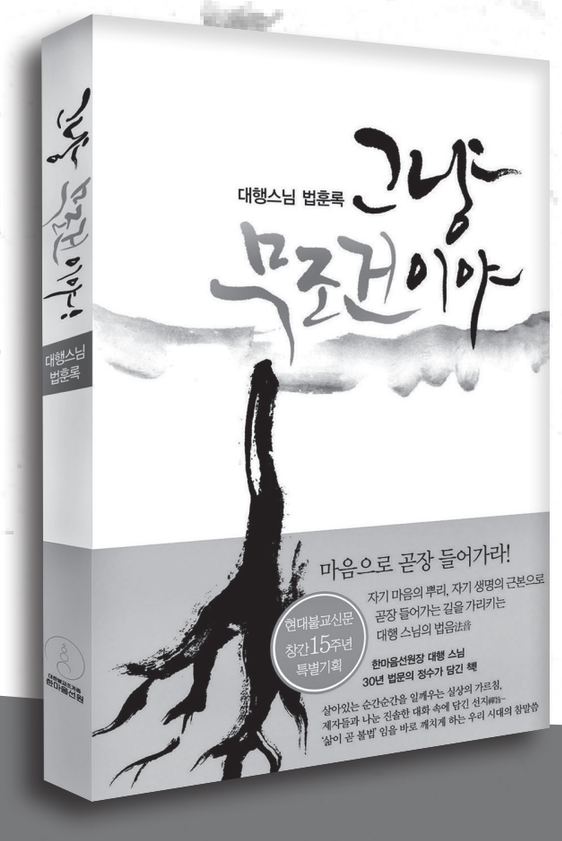
**큰스님** 하하하. 결국은 마음이지 뭘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 불교든지 세계적으로 종교가 어떻게 하고 가느냐 하는 것을 내가 그 전부터 외국으로 다니면서 잘 검토했는데요, 이 나무라면 전부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 하고 바깥으로 전부 찾고요, 부처님 찾는 것도 바깥으로 찾고요, 그러고 있어요. 뭐, 그 모든 것을 일체 배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무시하고 가니 그 뭐,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겠어요? 그리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왜 발전이 없겠느냐 하면 물질적으로는 발전이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정신적으로 발전이 있어야만이 이 한계가 없이 무한계로다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불국토를 만들 수도 있거니와, 세계를 다 혼합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주와 더불어 이 행성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전부 이게 작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이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이 세상에서 나쁜 악한 일이 생기고 죽이는 일이 생기고 또 뭐, 부모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또 돈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모두 옆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벌레라고 할까 짐승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모두 하게끔 되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자기를, 자기 분수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릇이 요만하냐 이만하냐 그거를 알아야 어떠한 거를 그 그릇에 담더라도 자기 분수에 맞게, 그릇에 맞게 담는데, 자기 분수를 못 보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큰 거를 갖다가 듬뿍 집어넣으면 그거 한데로 다 새니까 그건 사기를 당하고 또 돈을 떼이게 되고 모두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기 분수를 잘 알고 모든 걸 관하면서 그렇게 해라. 자기 그릇의 분수도 모르고서 강을 건너가다가 중간에 빠져 죽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가게를 하거나 빚을 내서 공장을 하고 빚을 내서 그냥 하는데 그 빚이 한 달에 얼마씩 늘어 가며, 먹고 살려면 차라리 빚을 내지 말고 몸뚱이로다가 부대껴서 뭐든지 해서 가늘게 먹고 그냥 살지 아이, 그냥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는 집도 절도 없애고는 이제는 못 살게 되는 이치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